

* 팀NO : 2019- 026										2019 단기선교팀 신청서 공항 : 에어아시아 *항공권구매: (자율)			선교위원회 확인		
1. 국가팀명 미얀마 6팀 2. 사역지 : 미얀마 만달레이 피지타운 3. 사역기간 : 2019 년 7월 30일(화) ~ 8월 6일 (화) / (7)박(8)일													서기	지도목사	위원장
NO	직책	직분	성명(한글/영문)		교구	CMTC	교적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E-Mail			
1	팀장	권사	안응화	AHN OUNG HWA	13		81-794								
2	총무	집사	이성원	LEE SUNG WON	14		96-123								
3	서기	집사	임우찬	LIM WOO CHAN	12		2018-033								
4	회계	집사	설예원	SUL YE ONE	15		94-113								
5	의료	집사	구영모	KOO YOUNG MO	3		89-118								
6	팀원	집사	원혜연	WON HYE YEON	15		96-509								
7	팀원	집사	장민지	JAGN MIN GI	8		90-105								
8	지도	목사	박동진	PARK DONG JIN	1		2017-024								
9															
10															
11															
12															
13															
* CMTC선교훈련 및 선교수련회는 출발 5주전까지 필수 수료하여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 비자를 받는 팀은 여권과 함께,비자를 받지 않는 나라는 여권을 COPY(B5 SIZE)하셔서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 사진은 반드시 6개월이내이거나 여권과 다른 사진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E-Mail Address는 팀장,총무,서기,회계만 기록요망.											담당	분과장			

비행마 간담레이 벨엔교회 사역을 가치고 ...

하나님은 우리가 삶에서 영적인 여정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해주셨다. 우리를 격이게 구원하셨고 삶에서 여정을 벗어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다. 또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죄를 용서 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힘으로 부르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우리는 부르신 것이다.

5년째 성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이 구원받고 기적이 주님의교회 (벨엔)에 세워졌다.

교회의 주체는 선교이며 선교의 주체는 생명화복이다. 온도로 선교하시는 하나님!

"민자가 온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함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최초의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 하는 것이었다.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다. 본업을 받은 제자들은 문화 언어 지리적 장벽을 넘어서 먼 곳까지 가서 성자가 복음을 선포하고 여왕인들을 개종시키고 그들을 모아 교회를 세웠다.

우리 또한 거룩한 회개의 눈물로 성자가 주지하는 선교사만이 그리스도의

주님의 대한 불멸한 인식을 갖게 되길 바란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베풀 수 없는 사랑정신을 진실히 깨닫는 사역이 되었다.

벨엔교회의 사역은 좌우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사모(동재 임선중), 성도들이 영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이런 변화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라

주신 믿었을 때 받은 새 생명의 증거이다. 너무나 벅찬 순탄순간이었다.

그리스도라 한계를 벗어난 삶이 나타나자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

비로소 생계, 태도, 가치, 감각을 갖게 된다는 것을 ...

우리 또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 같은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

성자가 잃이는 기록도 없다 기록된 신앙은 그 자체가 바로 삶이다.

기도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나라가 확장되기를 구하는 기도가 되었다.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받아들이고 온전

하나님만이 온전히 이룩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며 기쁨을 체험할 것이다.

끝으로 창세기에 복을 위한 하나님의 장엄한 계획에 동참하는 선교사들이 지속적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큰 복을 드나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미션마 6장 10절 안을바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이야 의의의애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골 3:11)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세 빛이 이르렀고 여왕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야" (사 60:1)

선교소감문

청년1부 미얀마 6팀

장민지

작년 여름에도 올해와 똑같이 미얀마 뵤엘교회로 선교를 갔었다. 이번 선교가 같은 곳으로 가는 2번째 선교였는데, 그만큼 느끼는 것도 더 많고 감사함이 더 많았던 선교였다.

어린이 사역을 주로 준비였던 만큼, 아이들에게 전해줄 복음을 생각하며 준비를 했다. 어린이 사역은 찬양과 설교, 간단한 활동 순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아이들이 설교 시간에 한 명도 떠들지 않고 설교에 집중하는 모습이 너무 놀라웠고, 보기 좋았다. 처음 접해보는 설교 주제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들 설교 ppt를 쳐다보며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 간 활동, 프로그램들도 너무 좋아해주었고, 찬양들도 큰 목소리로 잘 따라해주는 모습이 너무 예뻐다. 몇몇 찬양들은 이미 다 외운 아이들도 많았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어린이 사역 외에도 뵤엘교회 교인들 가정으로 짧게 심방도 갔었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멀어질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점점 더 믿음이 성숙해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일에는 교회 교인들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100명 이상이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다 같이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뻐다. 우리가 선교를 마치고 온 후에도, 매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비록 일주일도 안되는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동안 우리가 미얀마에 전했던 복음이 앞으로도 널리 전파되어서 미얀마의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장해나갔으면 좋겠다. 미얀마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길 소망하고, 기도할 것이다.

선교 소감문

청년1부 미얀마 6팀
임우찬

첫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20여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교에 대한 영적 이끌림을 느끼지 못하다가 3년 전부터 선교에 대한 작은 소망이 마음 속에 싹트기 시작했고 그뒤로 매년마다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오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어떠한 우선순위보다도 선교를 첫 번째 우선순위로 놓고 기도로 준비하며 활동에 임하는 결단력있는 행동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이에는 하나님께서 귀히 붙여주시고 들어주신 이성원 형제와 여러 상황들에 의한 이끌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지는 '미얀마 만달레이'. 솔직하게 선교에 임하기 전에 미얀마에 대한 아무런 배경지식도, 그 나라 사람들의 영적 상황과 문화에 대한 인식도 제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교를 준비하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단련함이 그 사람들의 생활과 영적 상황을 알게 하였고 선교지에 가서는 그 모든 것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게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선교는 제에게 있어 '살아 숨쉬는 날것의 복음'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 생활을 지켜나가며 많은 고난과 고민과 방종과 나태와 교만과 떠남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다시 어루만지시고 다시 찾으시고 다시 회개하게끔 이끄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매번 체험한 저로서는 어느순간 신앙적으로 쓰러져도 내가 주님의 티끌이라도 붙잡고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믿음이 마음 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신청하고 준비하는 시기에는 이전과 같은 영적 피폐함의 상태는 아니었지만 무언가 주님과 교제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고 매순간을 주님과 나누지 못하고 말이지 못하는 제 모습이 제 스스로에게 느껴지고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이를 위한 회복을 간구하였고 주님은 이번 선교를 통해 그 해답과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저에게 이번 선교는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복된 소리로 생생하게 받아들이고 느껴 시시때때로 주님을 다시금 두드리고 찾게 만드는 역사를 안겨주었습니다.

미얀마 땅에서 수많은 신앙적 깨달음과 감동과 비전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바로 ‘ 더 낮게 더 감사히 ’라는 신앙적 삶의 태도입니다. “ 미얀마 사람들의 삶과 신앙적 환경보다 우리의 것이 더 낮기 때문에 감사하자 ”라는 단순한 상대적 비교에서 나온 생각이 아닙니다.

저는 미얀마 만달레이 벤엘교회 땅에서 하나님의 복된 소리를 순수하고 깨끗하게 받아들이며 그 자체로 즐거워 기뻐하는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말씀을 그렇게도 온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했을 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그러한 귀한 영혼들을 제게 보여주셨고 나의 바로 서지 못한 신앙에 대한 깨달음을 던져주셨습니다. 제가 그간 스스로 신앙적으로 낮고 겸손하려 애썼다할지라도 그 저의에는 얼마나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들이 자리잡고 있었는지. 그러한 숨겨진 신앙의 고백들이 기도 가운데 드러나는 걸 느낄 때 부끄러움에 몸둘바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숨지 않고 다시 두손 모아 기도드렸습니다. “ 주님. 저 영혼들과 같은 언젠가의 저와 같은 순수하고 맑은 신앙적 자세를 내게도 허락해 주소서. 다시금 주님을 가장 낮고 가장 감사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내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 이러한 고백들을 주님께 올려드렸고 많은 영적 회개와 깨달음이 일어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은 간증이지만 위와 같은 영적 성장 외에도 선교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내려주신 많은 깨달음들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을 누리고 온몸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만족감은 정말 어떤 말로도 형용하기 힘들다는 것을 느꼈고 그렇기에 결코 선교가 한 방향을 향해 그 방향을 위해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님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전하는 자에게는 깨달음과 영적 성장의 은혜가 전함을 받는 자에게는 복음의 감동과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임해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하나되어 기뻐 받으시는 활동. 이것이 제가 느낀 선교였습니다.

그러므로 첫 선교에 이어 기도로 준비하며 주님께서 보내심을 기다리는, 제 힘 달는 순간까지 선교활동에 열정을 다 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자합니다.

선교를 통해 많은 은혜와 감사와 성장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선교 소감문

청년1부 미얀마 6팀
구영모

처음으로 어린이사역 미얀마를 갔다 15년 이후 처음가는 사역이라 걱정반 기대반이었다. 어린이사역을 준비하면서 율동과 만들기를 하는데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열심히 준비했다.

미얀마 도착후 사역지 뵤엘교회에서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를 했다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상황속에서 사역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다음날부터 어린이사역을 시작했는데 어린이친구들이 잘 따라주고 선물과 만들기를 좋아하는 모습에 뿌듯하고 그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길 바랬다.

그리고 뵤엘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그분들에 열악한 상황과 소개를 받았다. 정말 성도들을 보면서 상상하지 못할정도로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은 부족함 없이 자란 내가 정말 부끄럽고 창피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한없이 큰다는것을 경험했다.

정말 내 삶을 되돌아보고 결단하는 순간이였고 본받아된다고 생각했다.
한국에 들어와도 어린이친구들과 뵤엘교회성도들, 목사님을 위해기도해야겠다!!!

선교 소감문

청년1부 미얀마 6팀
이성원

선교를 가고자 하는 마음을 작년에 처음 가지게 되었고 올해 미얀마 만달레이 땅으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처음 가는 선교이고 총무라는 직책까지 맡아서 아는 것도 없고, 교구연합으로 가다보니 걱정과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박동진 목사님과 영성훈련을 통해 성령충만으로 기도함으로 선교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고 파우크 목사님의 힘있는 설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한마음으로 대답하며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벤엘 교회에 다니는 성도중 한명인 짐말레이 성도의 간증과 핍박하는 남편에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얀마 선교사역이 헛되지 않고 뜻깊은 일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약자의 편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었고 말씀에 힘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교구 연합팀으로 기성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사역함으로 서로에 대해 더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마냥 어려운 관계보다 대화를 하고 함께 준비하면서 좀 더 가까워지며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니다.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주셨고, 미얀마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선교사역이 되어 감사합니다.

선교 소감문

청년1부 미얀마 6팀
원혜연

이번에 미얀마 만달레이 지역으로 7박 8일간의 선교를 다녀왔다. 13교구분들, 청년팀, 박동진목사님이 함께 연합팀을 이뤄서 사역을 하게되었다.

걱정과는 달리 준비과정 속에서 각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하나되는 사역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 정말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성령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기도로 뜨겁게 사역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베엘교회를 이끌어가심이 너무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이곳에서도 베엘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만난 영혼들을 위해, 파우크 목사님을 위해, 베엘교회의 제자훈련 사역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해야함을 다시 결단합니다!

선교 소감문

청년1부 미얀마 6팀
설예원

이번 선교를 통해, 기도로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을 알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그 척박한 선교지에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분들을 알게 되어서 그 곳에 복음의 씨앗이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삶을 살아내는 것조차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알게 되어서 저의 상황에 감사했습니다. 분명 부족한 저를 보내 셔서 선교를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한 선교였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주님께 또 다시 감사할 수 있는 선교였습니다.